

# “동식물 孤魂 극락왕생하소서”



강릉 현덕사 동·식물천도제에서 송시량예술단 박태숙 단장이 동·식물의 영혼을 위로하는 살풀이 춤을 추고 있다.

## 강릉 현덕사 천도제... 공연·그림그리기로 위령

“사람들의 이기심과 편리함을 충족하기 위해 죽어간 동식물의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7월 10일 동식물 수륙고혼 천도제가 열린 강릉 현덕사(주지 현종, 3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린 천도제에서 율곡초등학교 6학년 신지윤 양의 발원문이 낭독되자 대중은 모두 고개를 떨군다.

이어 봉행된 천도제에서는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동물, 애원용 동물, 환경파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동식물, 실형용 동물, 조류독감

으로 폐사된 조류 등이 천도됐다.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동식물 영혼 천도법문을 통해 “동물과 식물, 우리 사람들과 귀천을 따지는 것은 인간의 관용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 지구에서 동물과 식물은 함께 공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지 현종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한 해 동안 갖가지 사연으로 숨을 거두는 동식물의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무척 많다”며 “불쌍한 동식물의 영혼을 천도하고, 사람들에게 생명 존중사상을 널리 인식시키기 위해

동식물 수륙고혼 천도제를 병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송시량예술단(단장 박태숙)의 살풀이, 승무 등 동식물 수륙고혼 천도를 위한 추모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강릉시 교동초등학교 학생들이 크레파스로 그린 동식물 앞에 참배하며, 우리 인간들로 인해 죽어간 영혼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했다.

동참대중들은 천도제가 끝난 후 자유와 생명존중을 상징하는 조류 10여수를 방생했다.

강릉=김원우 기자

# ‘아시아태평양잼버리’ 불교관 운영

8월 5일부터 11일까지 강원도 고성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잼버리’는 50여개국의 1천 5백명 가량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로서, 각 나라를 알리는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펼쳐진다.

지난 2002년부터 ‘한국잼버리’ 기간동안 불교관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불교스카우트지도자회는 다양한 문화·체험행사로 한국 전통의 불교문화를 알릴 예정이다. 또한 단주, 연꽃등 만들기, 예불, 108배기 등 신생활동 체험장을

별도 운영,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생활상담 코너는 청소년들의 이성문제, 진로 문제 상담 등을 진행, 보다 쉽고 가까운 생활불교의 모습을 각인시킬 계획이다.

전국불교스카우트지도자회 지도법사 청아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불교관 운영은 물론 7일에는 지도자들은 위한 ‘불교인의 밤’ 행사를 통해 청소년 포교 활성화 방안들도 모색하고, 8일에는 연합 대담회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011-9768-9551

김은경 기자

## ‘미르치과’ 나눔의집 4호점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들의 투병을 지원하는 ‘아름다운 나눔의 집’ 이어가기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장 스님)는 7월 10일 광주 상무지구에서 자리한 미르치과에서 나눔의 집 4호점 개설 기념식을 개최했다.

소아암 환자가족과 미르치과 직원 등 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 미르치과 류경호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나눔의 집 운동을 통해 소아암으로 고

통 받는 환우들이 모두 완치되는 날까지 병원 식구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념식에서 미르치과 직원들은 그동안 모아온 헌혈증서 600매와, 정성껏 짚은 종이화 유리병을 소아암 백혈병 환우들의 모인인 빛고를 동우회에 전달했다.

광주=이준엽 기자

**광주동구불교련 창립**

광주 동구지역 사람들의 연합 모임인 광주동구불교연합회(가칭)가 창립한다.

진화(중심사), 석장(문빙정사), 정선(대광사), 행법(선덕사), 일광(자비정사), 지각 스님(동원사) 등 무등산 동부지역 20여 사암 주지 스님들은 7월 23일 모임을 열고 연합 사업안, 회칙 등을 확정한다. 광주 동구불교연합회는 종단을 초월한 범 불교승가단체로 △동구불교 활성화 △무등산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문화축제 운영 △불교 대화회활동 전개 등을 펼쳐 나갈다.

이준엽 기자

**생명살림봉사 추진위 발족**

인드라망생명공동체(이하 인드라망) 생명살림봉사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원행·정덕 스님, 백남석) 발족식이 8월 7일 오후 4시 남원 실상사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1부 도법 스님의 즉문즉설 법회, 2부 발족식으로 진행된다.

100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단은 생명살림봉사 기금 마련 및 홍보, 친환경 쌀 공양미 유통 운동 등을 펼친다.

강유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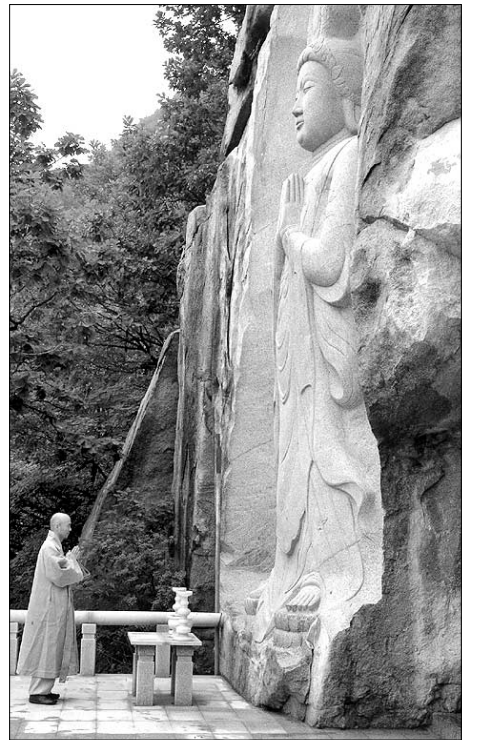


지금, 우리 곁에서...

## 양주 백화암

# 문화·교육·봉사 3박자 척척

경기도 양주 불곡산은 마애삼존불의 호위를 받고 있다. 높이가 10여 미터에 이르는 거대 마애불은 4년간의 불사 끝에 조성된 양각형태의 아미타 삼존불. 암벽을 깎아 고부조 형태로 제작한 불곡산 마애불은 바라보기조차 송구할 정도다. 웅장함에 저절로 외경심이 들 정도다.



백화암 마애부처님 앞에서 기도드리고 있는 주지 보은 스님.

이 같은 마애불 불사에 뛰어든 도량은 불곡산 백화암(주지 보은). 신라시대 도선국사가 창건한 백화암은 최근 문화도량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보은 스님은 1997년 백화암 주지로 부임한 이래 다양한 불사를 추진하면서 ‘살아 있는 도량, 거두나가는 도량’ 건설에 매진해 왔다. 천년 고찰의 아름다움을 오롯이 지켜나갈 것, ‘지금-여기’ 사부대중들의

## 4년 불사로 마애불 조성 국제 가면무축제 열기도

의 불심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다짐하며 백화암을 이끌었다.

백화암의 마애불 조성불사는 그 같은 스님의 원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스님은 우연히 불곡산 중턱의 바위를 발견하고 마애불을 조성하겠다는 꿈을 키웠다. 이후 국내는 물론 중국 등지를 오가며 불상을 연구했다. 탐방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는 이를 조각할 불모(불모)를 찾아 수개월간 전국을 누볐다. 마애불 불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열정은 식지 않았다. 조성비(조성비)를 새길 바위를 모색하며 4년 더 고민했다. 삼존불의 아름다움과 성스러움을 제대로 품을 수 있는 바위여야 했기 때문이다.

백화암에서 ‘국제 민속 가면무 축제’가 열린 것도 보은 스님 원력 때문이다. 산사음악회 등의 축제를 넘어서 특색 있는 문화의 장을 펼치고 싶었다. 그래서 아시아 6개국 20여명의 예술인들을 초청해 지난 6월 12일 가면

무 축제를 열었다. 대진대학교 무용에 슬학부 교수로 자리매김할 것을 다짐하며 백화암 및 학생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어울리는 대동의 무대는 각계각층의 주목을 받았다.

백화암은 이밖에도 교양대학을 통한 모범적인 신도 교육으로 정평이 나 있다. 5기까지 배출한 교양대학에서는 기본적인 불교 교리 지도는 물론이고,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봉사단을 결성해 양주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철저한 교육과 적극적인 실천을 강조하다 보니 ‘1당백’ 하는 신도들이 되었으며 백화암의 불자양성 교육과정은 다른 지역 사찰들에도 귀감이 되고 있다.

더 나은 문화도량을 꿈꾸는 백화암 사부대중의 발원은 끝이 없다. 5월 4일 점안된 마애삼존불이 전국 각지 모든 이들에게 신앙의 귀의처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백화암에서 시작한 민속 가면무 축제가 국민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들이다. (031) 840-1582 강신재 기자

## “파도 소리와 함께 번뇌 씻어내자”

산의 ‘덧’과 바다의 ‘정취’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산사수련회가 개최된다.

전남 고흥 거금도에 위치한 거금선원(선원장 일신)은 7월 29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여름 수련회를 기존의 사찰수련 프로그램과는 다른 시도를 행한다. 고흥 거금선원 여름수련회 청소년 이상 ‘섬사찰’ 특색살린 내용 풍부

기, ‘몽돌 해수욕장 행선’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파도소리 관하기’는 바닷가에서 직접 좌선에 들어 파도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내면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사찰수련 프로그램과는 다른 시도를 행하고 있다. 일신 스님은 “기존의 산사 수련회와는 다른 바다와 산이 어우러지는 수련회를 준비했다”며 “참가자들이 자연 속에서 ‘찰 나’를 찾아가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061)842-8488 박병영 기자

## 제주불교신도회 24일 출범

### 회장에 김계홍 씨

제주도내 각 사암 신도회를 비롯해 직장 직능 불자회가 참여하는 ‘제주불교신도회’가 7월 24일 출범한다.

이날 제주불교신도회는 국립제주박물관 강당에서 도내 각 사암 스님과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법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제주불교신도회는 종파를 초월한 범 불교계신도회로 신학에 포교교육, 생활경제, 사회문화, 환경, 사회복지, 여성, 호변, 청년지도위원회 등 8개 위원회를 두고 포교와 재가불자들의 수련 공동체를 이끈다.

한편 제주불교신도회 지도법사단은 창립법회에 앞서 초대회장으로 김계홍 前 북제주군수를 선출하

고 상임부회장에 문인종 전 불다림 협회장을 위촉했다. 이밖에 홍영선 제주불교사회봉사회 회장, 김성수 한라병원 원장, 김인희 전 제주불교관음암 회장, 최영범 정우식품 대표이사를 부회장으로 위촉했다.

이준엽 기자

**평창 월정사 불교대학 개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가 신도지도자 육성을 위해 9월 4일 불교대학(학장 원행)을 개설한다. 매주 토요일 열리는 불교대학은 불교교리, 불교사, 선의 이해와 실천 등 필수 과목과 자원봉사론, 원각경 강의 등의 선택과목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성직유수자에게는 장학금도 지급. (033)332-6664-5 남동우 기자

# 부처는 웰빙족이었다?

문화영의 생활명상집 **무심**! <SBS-TV> "오픈스튜디오", <MBC-TV> "즐거운 문화읽기" 등 20여 언론에 보도된 화제의 베스트셀러!

선방에서 화두잡고 앉아 무념무상에 빠지는 것만이 무심? 유키동과 스과 갖춰놓고 잘 먹고 잘사는 게 웰빙이라고?

소프라노 조수미의 긴 손톱에 담긴 자유로움!  
아름다운 죄, 사랑을 혼내주는 방법은 복수가 아닌 무심!  
폐위된 광해군이 18년 동안 유유자적 기쁘게 산 경지!  
근심걱정과 화를 금방 잊어버리는 축복받은 건강증!  
무심의 경지에서 지치지 않고 씩씩하게 일하기!  
수치심을 벗어나서 얻는 환희 날 듯한 마음의 자유로움!  
즐거운 죽음, 소풍 기듯 죽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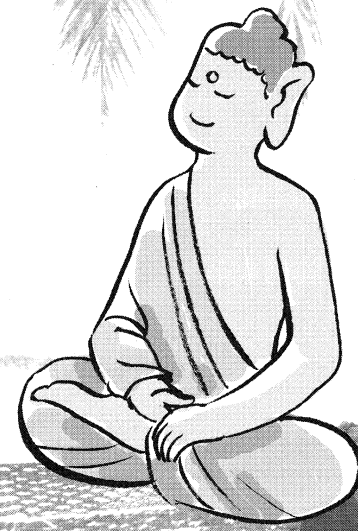
부처님처럼 웰빙하는 통쾌하고 시원시원한 마음 명상법, 문화영의 생활명상집 <무심>이 알려드립니다!



MBC-TV & SBS-TV "오픈 스튜디오" 교재!

책 이름: 무심(無心) · 사람은 어떻게 자유로워지나  
저자: 문화영  
가격: 9,000원

독서수선재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274-1, 2층  
TEL 02391-9315 FAX 02391-9314  
WWW.SOOSUNJAE.COM



(무심)에 소개된 글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무심 명상법은 명상학교 수선재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www.soosunjae.org, 1544-1150)